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요나 4장 1-11절-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아야할 재산을 몽땅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둘 째 아들에게 자비를 베푼 아버지의 마음을 첫 째 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역시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① 무엇을 향해 관심을 가지는가?

오늘 본문에서 요나와 하나님의 갈등은 최고조로 달해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보다 옳다고 주장하기 까지 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할까 두려워하였던 요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 미칠 지경이였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요나에게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산에 올라가 니느웨의 멸망을 고대합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산 꼭대기에서 따가운 햇볕을 쬐고 있는 요나에게 그늘이 되는 박넝쿨을 하룻 밤 사이에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 때문에 기뻐합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나의 필요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타인의 고통과 눈물에는 무관심한 사회입니다. 나를 향한 칭찬과 내 유익을 위해 울고 웃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지를 잘 생각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시각을 바꾸라

하나님께서 박넝쿨 때문에 니느웨 성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는 요나의 박넝쿨을 밤 사이에 조용히 시들어버리게 합니다. 해가 뜨니 뜨거운 햇살과 동풍을 준비하셔서 머리를 쬐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며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요나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3번째 질문하십니다(11절). 박넝쿨에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은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데, 하물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동물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냐고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습니다. 비록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다 할 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시각을 바꾸라 명령하십니다. 요나, 자신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고 하십니다.

③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은 긍휼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툼이 빈번하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사회 생활도, 가정도, 심지어 교회 생활마저 서로 정죄하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신약 시대에서 요나와 자신을 비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박는 자들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을 향해 멸망 받아 마땅하다 고집피우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그 성의 죄악을 두고 우셨습니다.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니느웨 성이 멸망을 받아 마땅하다 할 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니느웨는 잃어버린 자가 12만이나 되는 장소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이 말씀은 길을 잃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길 잃고 방황하는 이웃과 세상에 대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용서의 약속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임을 기억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래 참으시듯, 이웃에 대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길 소망합니다.